



초가을 정취는 억새꽃과 함께... 초가을 날씨를 보인 9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세별오름에 억새꽃이 피어나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제주의 가을을 알려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도-의회 실종된 협치 복원 주목

오늘 2년여만에 처음 도의회서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내년도 재정편성 방향·제주형 뉴딜·경제회생 등 논의

한 차례 불발됐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린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주형 협치체계'가 이번엔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10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 원희룡 도지사와 당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형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공동 선언한 이후 2년여만에 처음 열리는 자리다.

그동안 원 지사와 김 전 의장은 수차례 현안 협의를 위해 개최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6월 11일 첫 협의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개최 2시간여를 앞두고 도의회가 제2회 추경계획 문제 등으로 돌연 불참을 표명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처음 열리게 되는 상설정책협의회는 제주도와 의회가 코로나19로 대변되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코로나대응특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며, 도에서는 도지사,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도와 의회는 ▷포스트코로나 방역·경제 회복 방향 ▷2021년도 재정편성 방향 ▷제주형 뉴딜 실무T/F 구성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공동 노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좌남수 의장은 "재난과도 같은 시기에 도와 정책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자리인 만큼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코로나19, 경제, 제정의 3중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제주도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도내 모든 초·중학생 1/3 등교수업 오는 20일까지 연장... 네번째 변경

도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따라 조정
정상등교 미지수 혼란 가중

11일까지 예정됐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이 20일까지 연장된다.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네번째이나 학사일정이 변경된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11일까지 시행하려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도 이날까지로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초·중학교 학생 1/3 등교수업(초 1~2 매일 등교) ▷도내 모든 고등학교 2/3 등교수업(고 3 매일 등교) ▷도내 초·중·고등학교 100명 이하 또는 6학년 이하 하는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2/3 조치 가능 ▷유치원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2/3 조치 가능(단 7학년 이상은 반드시 2/3 밀집도 조치) 등이 20일까지 이어진다.

장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A(47·여)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교육당국이 갖고 있을 애로사항을 이해한다"면서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계속된 학사일정 변동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안심할 수 있는 선에서 제주도 교육청 자체적인 학사 방침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계속 코로나19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사 일정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 발표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13일 2학기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전체등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달 20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초 1~2학년, 특수학교 학생 및 입시준비를 해야 하는 중3·고3 학생은 매일 등교한다는 원칙 하에 학교 학급 수에 따라 2/3 등교 혹은 전체등교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나흘 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현재의 학사 운영 방안을 내놨다.

송은범기자

제주지역화폐 발행 11월 말로 늦춰질 듯

플랫폼업체 선정 등 보완 필요
도의회 조례 통과여부도 주목

제주지역 최초의 지역화폐 발행시점이 당초 추석(10월 1일) 전후로 계획됐지만 이와는 달리 11월말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플랫폼 업체 선정과 각 금융권의 질의 내용 등을 반영하는 등 보완작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화폐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37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화폐발행 형태는 카드형 및 모바일형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지류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발행 시점은 당초 10월로 예정됐지만 플랫폼 업체와 각 금융권의 질의내용 등을 반영, 우선협

상 대상자 선정이 늦춰지면서 11월 말 즈음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해당 조례안에는 지역화폐 유효기간 및 발행 종류, 운영 대행사와의 협약, 지역화폐 발행·유통·시스템 관리·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대행·

위탁 근거, 가맹점 자격요건 및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근거 등 세부사항 등이 담겼다. 하지만 도의회와 지역 금융업체가 우려하고 있는 자본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는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화폐 발행 시 투입하는 자본은 특정 계좌에 예치하는데 해당 계좌가 도의 금융사에 개설되면 자본 역외유출은 불가피하다.

한편 지난 4일까지 이뤄진 제주 지역화폐 명칭 공모 결과, 1700여건이 접수됐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백금기기자 haru@ihalla.com

유·초등·특수학교 교사 117명 채용

도교육청 시험시행계획 공고

내년 초등교사 임용계획이 발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9일 공고했다.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을 보면 유치원 교사 20명, 초등학교 교사 70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10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17명 등 총 117명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 교사 1명과 초등학교 교사 5명, 특수학교(유

치원) 교사 3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4명 등 총 13명은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11월 7일 제1차 시험이 시행된다. 이어 ▷12월 9일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2021년 1월 13~16일 2차 시험 ▷2021년 2월 2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이뤄진다. 이번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710-0354)로 문의하면 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020년은 Y신협 방문의 해

2020년 9월 11일

조합창립 40주년

2020 40th ANNIVERSARY

2040 적금출시! 최대 4.0%

대상자	제주Y신협 신규 가입 조합원 및 기존 조합원
기간	12개월
월 납입금액	최대 50만원
우대금리	- 기본금리 3.6% + 신규조합원 가입시 0.2% - 기본금리 3.6% + 체크카드 이용실적 30만원 이상시 0.2% (적금가입일로부터 3개월내)

*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주Y신협협동조합

■ 본점 : T.064-755-1501 제주시 서사로 12-1(웅담일동) ■ 신제주지점 : T.064-744-1502 제주시 성신로1길 18, 101호(연동) ■ 도리지점 : T.064-743-1501 제주시 도공로 25-1, 101호 (도두일동, 천마에코피아)